통일애국투사들의 신념과 의지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아흔번째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 리경구선생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리경구선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후 37년간 갖은 악형을 당하면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비단 그만이 아니다.

절해고도와 단두대에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모두의 고상한 정신세계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고 충성심이다.

김동기선생이 자신과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과 옥중투쟁을 담아쓴 책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을 남긴다》, 《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노래》, 《저녁노을은 붉다》 등을 보면 갈피갈피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 풍모에 매혹된 그들의 순결한 넋이 슴배여있다.

김종호선생은 전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새해를 맞으며 과분하게도 자기에게 표창장을 수여해주신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에 감복한 그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하며 수령님을 받들어 한생을 다 바칠것을 마음다지였었다.

하기에 그는 남조선의 대구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할 때 전향을 강요하는 간수들의 회유에 이렇게 추상같이 맞서군 하였다.

《나는 재산도 명예도 필요없다. 나는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면 만족하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애국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우주보다 더 큰 나의 재부이고 명예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감옥생활기간 죽음을 앞에 둔 순간들도 무수히 체험하였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도 죽음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옥중투쟁보고를 올리고 조국통일을 념원하였다.

서울감옥에서 생활한 제주도출신의 문장호선생은 어느날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였다. 그러나 그는 털끌만큼도 최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고 태연자약하였다.

사형집행을 며칠 앞둔 감방안에서 해방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다는 소식이 제주도에도 파급되여 어린 마음에도 그이에 대한 경모심이 커갔던 이야기이며 해방후 북반부의 민주개혁소식을 듣고 수령님을 흠모하며 살았던 이야기 등을 수감자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모습은 불사신의 기상이였다.

사형집행의 날에도 그는 조금도 비관을 모르고 통일애국의 한 길에 바쳐온 자기의 삶을 긍지롭게 돌이켜보았다.

간수들이 감방문을 여는 순간 문장호선생은 수감자들에게 나는 먼저 간다고, 모두 안녕히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긴채 육중한 철문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온 감방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통일 만세!》를 웨치였다. 그가 도고한 기상으로 단두대로 가는 시각에도 다시금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통일 만세!》의 웨침은 서울감옥을 뒤흔들어놓았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살인적인 전기고문, 물고문, 엄동설한에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다는 고문 등 참기 어려운 온갖 별의별 악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도 이겨낼수 있은것은 《나는 김일성장군님밖에 모른다.》, 《수령님, 오늘도 이겼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전사다.》, 이런 신념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대구감옥에서 투쟁한 윤용기선생에게 어느날 한 교회사가 회유하기를 우리가 전향서에 몇자 쓸테니 당신은 거기에 간단히 지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건 《절대비밀》로 다짐된다고 간계를 부리였다.

그때 윤용기선생은 이런 서슬푸른 말로 교회사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뭐라구? 내 손으로 손도장을 찍으라? 똑똑히 알아두라. 내 손은 우리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손이다. 봐라, 그리구 이 손은 앞으로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장군님께서 잡아주실 손이다.》

옥중에서도 그 언제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간수들의 악랄하고 비렬한 고문과 회유를 이겨내고 자기의 신념을 지켜온 그였다. 수령님과 꼭같으신 장군님에 대한 소식은 감옥의 철창도 뚫고 스며든 해빛이였다.

우용각, 리종환선생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기에 42년세월 중세기적인 모진 악형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었다.

결사를 각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문장에서도, 단두대에서도, 절해고도에서일지라도 그들이 뼈와 살로, 온넋으로 지니였던 신념과 의지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고결한 량심의 발현이였다.

그들은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수령을 받들고 따랐고 수령의 부름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뿌리박은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하는 제일 강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 설

통일을 불러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선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에게 저주를 퍼붓고있다.

재미동포 류태영이 창작한 시 《민족의 이름으로》도 우리 겨레의 이러한 자주통일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해외동포사회의 공감을 자아냈다.

시

민족의 이름으로

류 태 영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속박근성을 청산한
8.15가 있으나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게

외세의 속박과 침략이
당연한것처럼 여전히 남아있어
분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남녘땅

하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겠다고 피흘려 싸운

백두의 용사들과
자주자립의 신념으로 싸우는
통일애국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민족의 이름으로
절망의 문 닫고
희망의 문 열자

력사의 소용돌이
파헤쳐 나가면서
력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승리하리니
민족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처단하고 몰아내여
자주자립의 강성대국을
선포하리라

(2007년 창작)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독재통치의 지속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강화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앞에 질겁한 외세는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박정희매국《정권》의 장기집권을 성사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매국도당은 외세의 부추김밑에 파쑈폭압과 금권에 의거한 사기협잡선거를 공공연히 기도하여나섰다.

그들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매수, 위협, 공갈, 협잡 등 온갖 비렬한 방법을 다 썼으며 두 선거(6대《대통령》선거, 7대《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250만표, 260만표의 부정투표수를 날조해냈다.

이러한 전면적이고 로골적인 사기협잡행위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분노를 폭발시켰다.

박정희매국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196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600여명은 6.8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6.8선거가 《부정선거에서 시작하여 개표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갖가지 폭력으로 가득찬 란장판선거였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주권을 강탈한자들을 회개시키고 민권을 수호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뒤이어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남려수고등학교 학생들이 호응해나선것을 계기로 투쟁은 급속히 확대되여 서울과 많은 지방을 휩쓴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뿐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45개 대학 및 중고등학교의 4만 9 800여명의 학생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15일에는 8개 지역에서 65개의 대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 5만 8 400여명이 투쟁에 일떠섰다.

시위, 단식, 롱성, 투석전과 같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은 1965년 《한일협정》반대투쟁때처럼 치렬하게 벌어졌다.

파쑈독재의 암운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요구는 그들이 발표한 일련의 선언문들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투쟁의 첫 봉화를 든 연세대학교의 총학생회와 《자유수호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남조선전역에 민주반역의 낮도깨비가 배회하고있다. 6.8부정선거를 통해 창궐한 이 낮도깨비들은 민권을 테로하고 암흑공포정치의 캄캄한 먹구름을 드리웠다.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고 말았다. 권력의 칼자루와 독사의 간교로써 국민을 소와 말처럼 조롱하고 위협한 민주반역자들의 창궐은 조국의 대기를 얼마나 오염시켰는가! 그래서 지성은 림전태세를 갖추고 정의의 대렬을 형성했다. 민족량심을 철권으로 란압하는 반동세력의 사령탑을 향해 우리의 대렬은 홍수처럼, 해일처럼 민주반역도당의 심장부를 향해 총진격할것을 만방에 선포한다.》

서울과 전라남도 광주, 보성, 전라북도 군산, 남원, 완주, 충청남도 서천, 경상북도 영천, 대구 등 남조선의 도처에서도 각계층 주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다.

6.8부정선거반대투쟁에는 《4.19회》, 《한국언론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기독교련합회》, 《시국수습협의회》, 대중당, 신민당, 민주당 등 일련의 정당, 단체들도 참가하였다.

하여 투쟁은 각계층의 광범한 민주력량을 망라한 공동투쟁으로 더욱 확대발전하게 되였다.

남조선의 58개 지역에서 30만명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한 6.8부정선거반대투쟁에 의하여 《민정》으로 위장된 파쑈독재의 정치적부패가 안팎에 널리 폭로되고 부정선거에 의하여 조작된 7대《국회》가 3개월이상이나 《개원》을 보지 못하고 기능이 마비되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였다.

6.8부정선거반대투쟁은 파쑈독재에 항거하는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참가한 민주화투쟁으로서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위기를 더 한층 심화시켰다.

본사기자 김 영 진

6.8부정선거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서울대학교학생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민이 추억하는 화술계의 재사

인민배우 박 섭

육체적인 로쇠는 있을는지 몰라도 아마 목소리만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려는 나의 정신과 함께 힘있게 울릴것이다!

인민배우 박섭은 공화국인민들속에 《화술계의 재사》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저력있고 사색적인 특유의 화술로 그는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군 하였다.

그의 재능은 결코 타고난것만이 아니였다.

나라없던 시절 박섭의 인생도 물우에 떠다니는 부평초신세였다.

박섭은 1925년 겨울 서울시의 어느 한 빈민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온 식구가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수입에 기대여 근근히 연명해가는 형편에서 하루 세끼중 겨우 한끼를 에우거나 그마저도 없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도 가슴에 불타는 향학열만은 눅잦힐수가 없어 그는 15살 나던 해에 상업실천학교 야간부에 다니게 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 박섭은 토목조수가 되였지만 일본인관리들에게 당하는 천대가 지겨워 관청일을 걷어치우고말았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기도 하고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차례지는것은 민족적멸시와 노예의 굴욕뿐이였다.

설상가상으로 1945년 8월초에는 징병장까지 날아들었다.

박섭은 억이 막혔다. 이대로 왜놈의 총알받이가 되여 이름도 모를 타향의 황량한 곳에서 무주고혼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설음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통탄한들 망국노의 처지에 어찌한단 말인가.

바로 이러한 때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지휘하신 항일대전의 승리로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날이 밝아왔다.

동북의 열하지역에서 뒤늦게야 그 소식에 접한 박섭은 숨막히게 끓어오르는 환희와 격정을 터치며 그길로 일본군병영을 뛰쳐나와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방이다. 재생을 맞이한 조국땅에서 나는 무엇을 할가?)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형을 따라 박섭은 지방으로 나가 그 고장 청년들과 함께 예술소조를 뭇고 주변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자신의 소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박섭은 배우가 되기를 열렬히 지향하였고 서울로 돌아와 어느 한 극단에서 배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녘땅에 들여놓은 외세의 군화발밑에서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던 사람들의 가슴은 날이 감에 따라 점점 서늘하게 식어들고있었다.

박섭의 가슴속에 봄싹처럼 돋아나던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박섭은 주저없이 항쟁의 대오에 들어섰다. 다시는 되풀이하고싶지 않은 식민지노예살이였고 결코 빼앗길수 없는 소중한 조국땅이였다.

그는 형과 동무들의 영향밑에 외세와 그 주구들을 단죄하는 삐라공작에도 참가하고 남녘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진보적인 극단들에 대한 놈들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박섭은 한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를 회상하며 박섭은 그 나날 나의 마음은 일구월심 북녘으로만 달려가고있었다고 말했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였던것이다.

박섭은 당시 전선지구경비사령부 문화공작대에 입대하여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부대들과 해방지구들을 돌며 위문활동에 참가하였다.

그 나날 그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참다운 삶의 품, 온 겨레가 운명을 맡길 위대한 품이라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조금도 망설임없이 북행길을 택하였다.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옳은것이였는가에 대해 그자신도 그때 다는 알수 없었다고 한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국립영화촬영소(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전신)에 소환된 박섭은 예술영화 《또다시 전선으로》(1952년)에서 단역인 적군 중위역을 맡는것으로 영화배우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나라에서는 전쟁시기 가정을 이루는 그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결혼식을 차려주고 아담한 살림집도 배정하여주었다.

그러던 주체53(1964)년 12월 박섭은 꿈결에도 경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처음으로 몸가까이에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지난날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자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관심하는 영화무대에 내세워주시고 마음속에 한점 그늘이라도 있을세라 다심한 정으로 품어주시는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박섭은 영화창조사업에 진심과 열정을 다 바쳐갔다.

그 대표작들이 예술영화 《조국으로 돌아온 판오의 일가》(1970년), 《푸른 소나무》(1984년), 《교육자의 모습》(1988년) 등이다.

박섭의 배우생활에서 전성기는 그가 번역영화배우로 활약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섭, 오향문을 비롯한 화술에서 특기가 있는 여러 배우들을 번역영화창조사업에로 불러주시였다.

초기에 배우들은 외국영화이니만큼 그 나라의 말억양과 표현방식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나름의 생각에서 대사에 별난 억양을 붙이다나니 결국 우리 말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닌 얼치기화술이 되고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대사형상을 화면에 나오는 인물의 입놀림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영화해설을 영화를 연구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한 기초우에서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식 번역영화형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정녕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박섭은 다시금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박섭이 《설화의 왕》으로 불리울 정도로 남다른 화술기량을 소유할수 있은것도 장군님의 이렇듯 빛나는 예지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배우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기회에 화술에서 박섭, 오향문동무들을 따를 배우가 없다고, 자신께서는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다가도 이들이 번역해설한 영화를 보면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박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외국영화들은 물론 우리 나라 영화들에서도 대부분의 설화를 맡아 형상한 이 분야의 로장이였다.

외세의 무력침공으로 조선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지금 TV에서 매일 방영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창작에도 박섭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 영화에서 창조된 박섭의 설화형상은 수십여년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이밤따라 저 달빛은 나의 가슴에
왜 이리도 하많은 이야기 속삭여주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소리는
청류벽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여울물소린가
아니면 어린시절에 듣던 모란봉의 그 솔바람소린가…

영화에서 나오는 설화시의 한 대목이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인 이 설화시를 박섭은 조용하면서도 절절하게 읊어 영화장면에도 맞고 주인공의 심리감정과도 완전히 밀착된 사색적인 화술형상을 창조하였던것이다.

그 장면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섭동무가 설화시를 아주 잘 읊었다고, 시인이 시도 잘 썼지만 박섭동무가 형상을 아주 잘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우리 말을 정확하고 부드럽게, 구수하게 형상하는 그의 화술세계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군 하였다.

1971년 5월 하순 어느날 박섭은 위동맥파렬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고 사경에 처하였다.

그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알리는가고, 그 사실을 아무리 믿을래야 믿을수 없으니 다시 가보고 알리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으로부터 박섭의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를 살려내기 위한 긴급대책을 취해주시고 의사들이 선뜻 수술칼을 댈념을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환자의 생명은 자신께서 보증할테니 대담하게 수술하라고 힘을 주시였다.

친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이렇듯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그처럼 어려웠던 수술은 5시간만에 성과적으로 끝났고 죽음을 선고받았던 박섭의 생명은 다시 이어지게 되였다.

소생후 침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섭은 오열을 터치고야말았다.

그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몸상태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시면서 귀중한 보약들을 거듭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병원을 나설 때에는 너무도 기뻐하시여 퇴원축하모임까지 마련해주시고 경치좋은 곳에 휴양도 보내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그때 박섭은 안해에게 저 남녘땅에서 철들기 전부터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일찌기 위병을 얻은 자기에게 헤여질 때 소다 한봉지밖에 쥐여주지 못한 어머니가 오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눈물에 젖어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겠다고 거듭 외웠다고 한다.

자식에게 베푸는 어버이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섭동무가 대사형상을 특색있게 잘한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큰 대회의 대표명단에도 친히 그의 이름을 써넣어주시고 공훈배우칭호와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주체81(1992)년 4월에는 김일성상계관인의 높은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주체85(1996)년 7월 어느 날에는 입원치료를 받고 나온 박섭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70살이 넘었지만 아직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이렇듯 웅심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박섭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육체적인 로쇠는 있을는지 몰라도 아마 목소리만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려는 나의 정신과 함께 힘있게 울릴것이다!》

박섭은 2001년 10월 17일 퇴근시간이 퍽 지나도록 자기가 맡은 장면의 대사록음의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놓고서야 흐뭇해지는 의식속에 퇴근길에 올랐다.

그 영화가 그가 형상한 마지막영화였고 영화에 록음한 박섭의 목소리는 그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목소리였다.

박섭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고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자신의 잊을수 없는 전우들과 나란히 내세워주시였다.

주체91(2002)년 3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자리에서 박섭에 대해 회억하시면서 공화국영화사에 새겨진 그의 공로를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어버이의 마음속에는 떠나간 자식이란 없었다.

박섭이 세상을 떠난지도 20년을 가까이한다. 그러나 한번 정을 주고 믿음을 주면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영원한 삶의 품,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그의 생은 별처럼 빛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예술영화 《교육자의 모습》에 출연한 박섭선생(가운데)